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박민경

I. 머리말

II.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近江毛野臣의 도해배경

III.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1. 毛野臣의 역할

2. 야마토 정권의 毛野臣 파견목적과 추방

I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서기』 「계체기」(이하 「계체기」로 서술) 23~24년조에는 近江毛野臣(이하 ‘毛野臣’으로 서술)이라는 倭使가 약 2년간 임나에서 행한 행적이 서술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웅천과 안라에서 회의에 참가하였고, 신라의 伊叱夫禮智와는 알력 끝에 多多羅 등 4촌의 초락을 초래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는 임나의 阿利斯等과 갈등을 빚어 귀국을 종용당하였고, 결국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축출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의 군사를 불러들이고 야마토 조정도 귀국을 명하자 귀국 도중에 對馬島에서 병사하였다고 한다.

毛野臣 사료는 「흙명기」에 나오는 출신지나 도해시점, 귀국시점 등이 불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7741).

분명한 왜계관료와 달리 도해부터 축출까지의 행적이 안라와 임나의 아리사등과 관련되어 남아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이 사료를 통해 6세기 전반의 한반도 남부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일본서기』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번국관념 하에 편찬되어 한반도 관련 사료에 많은 윤색과 과장 및 왜곡이 행해져 있는데, 毛野臣 사료 역시 그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체기』의 한반도 관련 사료가 『삼국사기』 등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3년의 차가 발생하는데다 毛野臣과 관련된 사료도 是月條, 是歲條 등으로 표기해 연대 및 활동시점을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흙명기」에 보이는 이른바 ‘임나일본부’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해석을 어렵게 한다.

이는 毛野臣과 관련된 한일학계의 연구성과에서도 드러나는데, 毛野臣의 存否여부 문제부터 도해시점, 목적, 활동 등의 규명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¹⁾ 먼저 毛野臣의 存否여부를 보면 『일본서기』 찬자가 고대 일본의 천황주의 사관을 구체화하기 위해 假像하여 날조된 인물이라는 견해와²⁾ 실제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인물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후자도 양국학계가 상이한 의견을 보인다. 먼저 일본학계의 경우 왜의 ‘加羅經營’을 위한 파견관으로 본 후³⁾ 이를 정치화하여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시초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현재 일본학계의 견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⁴⁾ 한국학계는 백제가 파견한 사신의 활동을 『일본서기』 찬자가 毛野臣의 활동으로 개변했다고 보는 입장⁵⁾과 안라와 왜국 간 정치적 교섭

-
- 1) 나행주, 「6세기 한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17쪽.
 - 2) 백승충, 「‘임나부흥회의’의 전개와 그 성격」, 『釜大史學』, 17(1993); 백승옥,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2004).
 - 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6);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 近江毛野臣의 所傳を中心として」, 『日本書紀研究』, 2(1966).
 - 4)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東京: 吉川弘文館, 1999); 鈴木英夫,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東京: 青木書店, 1997); 大橋信彌,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 (東京: 吉川弘文館, 2019).
 - 5) 김현구, 『任那日本府研究』 (서울: 일조각, 1993); 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의 결과로 도해하고 안라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행동하였다고 본 입장으로 나뉜다.⁶⁾

이상과 같이 한 인물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 존부조차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료가 전하는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것이다. 그럼에도 후술하듯이 毛野臣의 행적에서 毛野臣이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국주 그리고 백제와 신라와도 관계한 양상이 나타나고, 「흠명기」 2년조의 ‘中佐平 麻鹵와 城方甲背 昧奴 등을 보내 가라에 가서 임나일본부에 모여 서로 맹세를 하게 하였다’⁷⁾는 성왕의 회고 역시 毛野臣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련된 사료에서 왜곡 및 윤색된 부분을 걸러내어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다면, 6세기 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毛野臣의 한반도에서의 행적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외교전략이 합치된 정치적 결과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⁸⁾ 이렇게 이해할 때 6세기 전반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의 구체적 대응양상과 야마토 정권이 毛野臣 파견을 통해 얻고자 하였던 목적 등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II장에서는 안라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야마토 정권 간에 毛野臣의 도해를 요청하게 된 배경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을 통해 그의 역할 및 목적 그리고 추방되는 과정을 통해 그의 도해가

6) 김태식, 『加耶聯盟史』(서울: 일조각, 199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서울: 해안, 1998); 이연심, 「近江毛野臣의 任那派遣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30(2006);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지역과 역사』, 47(2020).

7) 『일본서기』권19 「흠명기」2년 4월조.

8) 본고는 6세기 초 야마토(구체적으로는 아스카(飛鳥)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립된 계체신왕조에 대해 일본 최초의 세습왕권으로 평가한 이재석의 견해(이재석, 「6세기 초 繼體 新王朝의 성립과 그 의의」, 『한성사학』, 27(2012), 65-66쪽)을 받아들여 한반도 제국과 교류한 일본 열도의 주도적 세력을 야마토(大和) 정권으로 보고자 한다.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해본다.

II.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近江毛野臣의 도해배경

후술하는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그의 도해는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가 야마토 정권에게 毛野臣의 파견을 요청하게 된 배경과 야마토 정권이 이를 수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피살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하자 웅진 천도를 단행하였다.⁹⁾ 천도 이후 백제의 국가적 과제는 북방에서의 고구려 방어책과 남방에서의 새로운 농업생산지에 대한 확보였고,¹⁰⁾ 무령왕대에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무령왕은 즉위 후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압박의 수위를 올리는 한편,¹¹⁾ 남방 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추진하여 가야제국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3~4대 이전에 가야지역으로 이탈해 간 백제인들에 대한 파악은 그 신호탄이었다.¹²⁾

이어 임나의 4현을 장악한 후 기문 및 대사지역의 장악을 시도하였다. 513년에는 기문장악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가야연맹체의 수장인 반과와 협의를 추진하였는데, 그 협의의 장에는 신라와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까지 참여시켜 공식적, 공개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였고,¹³⁾ 516년 기문에서 物部連을 맞이하여 입국시킴으로서 장악을 완료하였다.¹⁴⁾ 이 회합에서 주

9)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원년 10월조.

10)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서울: 일조각, 1988), 164쪽;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69쪽.

11)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즉위년조 및 6년조, 7년조, 12년조.

12) 『일본서기』권17 「계체기」3년 2월조.

13) 『일본서기』권17 「계체기」7년 6월조.

14)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東京: 吉川弘文館, 1992), 133~134쪽;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목되는 점은 가야제국 중 안라만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안라의 참여는 정황상 백제의 기문장악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과적으로 안라는 이 회합에서 반파의 외교능력이나 지도력 등 그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어 백제는 늦어도 522년에는 대사지역까지 장악하여,¹⁵⁾ 남해안을 통한 대외 교통로의 장악뿐만 아니라 진주·함안으로 진출하는 군사 전략상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¹⁶⁾

한편 반파 즉 가라는 백제의 기문 및 대사지역 장악을 막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¹⁷⁾ 가야제국 내에서의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자, ‘우륵 12곡’의 제작을 통해 ‘가라연맹’의 결속을 도모하고¹⁸⁾ 신라와의 결당 즉 통혼을 추진하였다.

A-1. 법흥왕 9년(522) 봄 3월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왕이 伊滄 比助夫의 누이를 그에게 보내주었다.¹⁹⁾

2. 법흥왕 11년(524) 가을 9월 왕이 남쪽 국경으로 순행을 나가 지경을

(2014), 54~56쪽.

한편 사료에는 회합의 주체가 야마토 정권이요 여기에 한반도 제국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지배사관’의 전제 하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 볼 수 없다. 이 회합의 주체는 기문지역을 영역화하려고 한 백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44쪽)

- 15) 백제의 대사장악 시기에 대해서는 516년설(위가야, 「백제의 己汶·帶沙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사림』, 58(2016), 198쪽), 늦어도 522년 이전설(田中俊明, 같은 책, 133~135쪽;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41~43쪽), 529년설(이영식,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1995), 218~219쪽) 등이 있다. 516년설의 경우 物部連을 기문에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사진에서 기문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안전이 확보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16년에 반파는 다사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늦어도 522년설로 보는 경우는 대사함락이 가야와 신라가 결당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통혼이 이루어지는 522년으로 본 것이다. 529년 설은 529년에 통혼이 결렬되면서 가야와 신라가 전쟁을 치루자,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 백제가 대사진출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16)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84쪽.

17) 『일본서기』권17 「계체기」8년 3월조.

18) 백승충,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 19(1995), 74~78쪽.

19)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법흥왕 9년 3월조.

개척하니 가야국왕이 와서 만났다.²⁰⁾

3. 계체 23년(529), …이로 말미암아 가라는 신라와 우호를 맺고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은 신라의 왕녀를 맞이하여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시집보낼 때 아울러 100명을 시종으로 보냈다. 이들을 받아들여 여러 현에 나누어 두고 신라의 의관을 채용하게 했다. 阿利斯等은 그들이 變服한 것에 분개하여 사자를 보내 그들을 모두 모아 돌려보냈다. 이에 신라가 크게 부끄러워하고 왕녀를 불러오고자 하여 “전에 그대의 청혼을 받아들여 내가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이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왕녀를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한다.” 고 하였다. 가라의 己富利知伽가 “부부로 맺어진 것이니 어찌 다시 헤어질 수가 있는가. 또한 자식이 있는데 어찌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답하였다. 마침내 지나가는 길에 있는 刀伽·古跛·布那牟羅 3성을 함락시켰으며, 또한 북쪽 변경에 있는 5성을 빼앗았다.²¹⁾

사료 A-3에는 529년에 통혼에서 결렬이 한 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혼은 522년에 이루어졌고(A-1) 529년에 결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522년에 성립된 통혼이 이후 어느 시점에 아리사등이 변복을 이유로 신라의 종자를 돌려보내자,²²⁾ 529년에 3성 및 北境 5성의 함락으로 이어져 결국 통혼은 실패한 것이다. 반파의 백제의 기문 및 대사장악 저지실패 및 신라와의 통혼실패는 가야제국 내에서 가라가 지니는 위상 및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통혼의 실패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A-2의 가야국왕의 來會와 A-3의 아

20)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범흥왕 11년 9월조.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이 부분을 ‘왕이 나가 남경의 칙지를 순행하니 가야국왕이 내회하였다’로 해석하였으나, 가야왕의 來會에 주목하여 단순히 순행만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견해를 따른다(이재민, 「신라의 금관국 복속과정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2017), 14쪽 주51).

21) 『일본서기』권17 계체기 23년 3월조.

22) 변복에 대해서는 가야 북에서 신라 북으로 변복했다는 설(武田幸男, 「新羅法興王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舎, 1974), 99~100쪽)과 반대로 신라 북에서 가야 북으로 변복했다는 설(末松保和, 『任那興亡史』, 232쪽; 이영식, 「대가야와 신라, 혼인동맹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세계』, 44(2013) 51쪽)이 있다.

리사등의 변복에 대한 반발이다. 먼저 내회한 가야국왕을 금관국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²³⁾ ‘南境拓地’가 신라의 영역확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내회한 가야국왕은 신라와 통혼을 맺어 가야제국 내에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반파 즉 가라왕으로 생각된다.²⁴⁾ 가라왕 입장에서는 통혼한 신라가 ‘남경척지’라는 군사행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가라왕의 선택지는 신라의 군사행동에 맞대응하거나 신라의 행위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방식은 이미 백제와의 분쟁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가라왕은 후자 이미 상황이 종료된 신라의 영역확장을 현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사료 B-3 己富利知伽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기부리지가에 대해 기부리=大邑, 지가=君長의 의미로 기부리지가를 가라의 대응장으로 본 견해를 따른다면,²⁵⁾ 가라왕과 가라의 기부리지가는 동일인물로 생각된다. 출전을 달리했기 때문에 異表記가 나온 것이다. 기부리지가(=가라왕)는 ‘신라와 맺은 부부의 연과 자식의 존재’를 강조하며 신라와의 통혼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신라의 군사행동에 대해 현실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가라왕의 내회는 그의 의지였다기보다 양국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신라 측의 강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는 가야 연맹체의 수장인 가라왕을 拓地한 곳에 입회시킴으로서 신라의 남부 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가라국왕의 승인과 함께 백제를 비롯한 가야제국 간에도 공식화하는 이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23) 주보돈, 「加耶滅亡問題에 관한 一考察」, 『慶北史學』, 4(1992), 191쪽;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9~200쪽. 금관국의 신라 병합이 532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신라의 군사, 외교적인 침투공작의 결과로 보고 금관국에 대한 병합의 1단계 행동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24) 필자는 이전의 논문(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47쪽)에서 이때의 가야국왕을 금관국으로 파악하였으나, 대가야왕으로 수정한다. 한편 내회한 가야국왕을 반파 즉 고령의 대가야왕으로 보는 견해는 鬼頭清明(『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東京: 校倉書房, 1976), 202쪽), 김태식(『加耶聯盟史』, 187~188쪽). 위가야(「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역사와 현실』, 115(2020), 293쪽) 등이 있다.

25)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の所傳を中心として」, 40쪽.

신라가 ‘남경척지’ 한 곳은 탁기탄으로 추정된다.²⁶⁾ 탁기탄의 위치를 영산과 밀양 일대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²⁷⁾ 이 위치는 사료에서 말하는 가라와 신라의 경계이자 신라의 남경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성왕은 탁기탄 멸망에 대해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공격을 받았다’²⁸⁾라고 회고하고 있는데, 수차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면 524년은 신라가 탁기탄을 공격한 시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²⁹⁾ 이에 아리사등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 가라왕에게 강하게 반발하였고 마침 변복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신라의 종자를 추방하였던 것이다. 아리사등은 가라왕과 대척점에 선 인물이자 신라의 종자를 추방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라왕에 버금가는 가야제국 내 유력 수장층일 가능성이 높다.³⁰⁾ 그의 반발은 3성 및 북경 5성의 함락을 초래하였다. 사료에서 함락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주체에 대한 이설이 있으나,³¹⁾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통훈이 결렬된 후 신라가 함락시

26) 백승충, 「가라·신라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釜大史學』, 20(1996), 16~18쪽;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292~293쪽.

27) 김태식, 『加耶聯盟史』, 187~188쪽.

28) 『일본서기』권19 「흥명기」2년 하4월조.

29)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293쪽.

30) 아리사등 사료는 『일본서기』에 4곳 나오는데 본고와 관련된 사료는 「계체기」 23년 3월조와 23년 4월조, 24년 9월조이다. 본고는 23년 3월조에서 己能末多干岐를 아리사등으로 본 분주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능말다는 인명이며 간기가 위호임을 볼 때, 기능말다는 간기라는 위호를 가진 가야제국의 수장이다. 기능말다가 인명이라면 분주에 나오는 아리사등은 간기 즉 위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24년 9월조에는 기능말다라는 인명 대신 아리사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능말다≠아리사등처럼 인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능말다가 야마토 정권에 신라의 침략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였고 아리사등 역시 반신라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능말다=아리사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연민수는 「敏達紀」12년조에 나오는 達率 日羅의 父인 ‘아리사등’의 예처럼 인명으로 쓰인 경우도 있어 한반도에서 위호로 사용되다가 인명으로 전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3~194쪽).

31) 가야로 보는 견해는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東京: 吉川弘文館, 1978), 209쪽; 平野邦雄, 「繼體・欽明紀の對外關係記事」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1978), 130쪽 등이고, 신라로 보는 견해는 三品彰英(「『繼體紀』의 諸問題-特に 近江毛野臣의 所傳

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만 변복에서 3성 등의 함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신라가 침공의 구실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변복은 어느 옷으로 바꾸던간에 쉽게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라가 공략한 3성 및 북경 5성은 지역은 아마도 아리사등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3장에서 후술)

한편 백제는 가라와 신라의 통혼이 이루어지자 525년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³²⁾ 그 목적은 가라와 신라가 통혼을 맺은 후에 신라가 ‘남경척지’ 한 곳에 가라왕이 직접 대회할 정도로 신라가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이에 대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³³⁾ 529년에 신라가 3성 및 북경 5성을 장악하여 가야제국에 대한 영역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백제는 대사지역 장악 이후 9년여 만에 군사활동을 재개하여 531년에 안라국 주변으로 진출하여 걸탁성을 축성하였다.³⁴⁾ 이는 안라국으로 진출하여 군사 전략상의 최전선으로 삼아 신라의 남부지역 진출에 대비하고자 한 백제의 의도였다.

아리사등은 가라와 신라의 통혼책이 파기된 후 3성 및 북경 5성 함락, 532년 금관가야 병합 등 신라의 서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자 신라의 그 다음 목표는 자신이 아수장으로 있는 지역임을 간파하였고, 그 대책을 수

を中心として」, 40쪽), 주보돈(「加耶滅亡問題에 관한 一考察」, 169쪽), 김태식(『加耶聯盟史』, 195쪽) 등이다.

32)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성왕 3년조.

33) 이 시기 백제의 사신 파견에 대해, 고구려 침공에 대비한 관계개선으로 보거나(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07), 52쪽) 신라의 군사적 원조 촉구와 신라의 가야방면 진출에 대한 경고(정운용, 「고구려·신라·가야와의 관계」, 『백제의 대외관계』,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9, (공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20쪽)로 보는 견해가 있다. 524년 신라의 ‘남경척지’를 탁기탄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이 사건의 정황파악과 신라와 양나라 간 교섭중개 과정에서 백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자 관계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파견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 제회의’」, 292~296쪽).

34) 『일본서기』권17 「계제기」25년 12월조 제주.

립하였다. 안라 역시 531년 백제가 진출해오자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그 대비책은 백제의 513년 기문지역 장악 시 추진했던 방식인 회합을 이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 공개적으로 안위를 보장받는 방식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였던 가야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이에 아리사등과 안라국은 야마토 정권에 毛野臣의 파견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한편 6세기 들어와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지역을 기반으로 계체신왕조가 등장하였다. 계체가 등장하는 5세기 말~ 6세기 초는 고분문화가 중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이자, 구왕조의 기반이었던 河內平野에서 권력과 대규모 노동력의 집적을 상징하는 고대고분이 급속도로 그 규모를 축소하는 등 河內王朝라 칭할 수 있는 권력이 하나의 지방정권으로 쇠퇴하던 시기였다.³⁵⁾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계체는 구왕조의 쇠퇴에 편승해 大和로 들어가 구왕조의 여성인 手白香皇女와 결혼해 ‘계체신왕조’를 일으켰다는 이해가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³⁶⁾ 그러나 「계체기」의 내용이 계체가 越前, 近江에서 성장하여 河內에서 즉위하는 과정과 천도 과정, 盤井의 난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반도 관련기사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계체신왕조가 성립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정치적 입지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천도과정, 河內的 樟葉宮에서 즉위하였지만 이후 筒城, 弟國을 거쳐 20년 만에 大和에 입성하여 磐余의 玉穗에 도읍을 정할 수 있었다³⁷⁾는 점은 이를 방증할 것이다. 게다가 九州에서 발생한 磐井의 반란은 야마토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전하는 계체신왕조의 입지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다.

35)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68쪽.

36) 水野祐에 의해 계체신왕조론이 제기된 후(水野祐, 『増補 日本古代王朝論序説』(東京: 小宮山書店, 1954), 直木孝次郎, 『日本古代國家の構造』(東京: 青木書店, 1958)과 岡田精司(『繼體天皇の出自とその背景』, 『日本史研究』, 128(1972) 등이 이를 보완하였다. 한편 계체의 출자에 대한 사료를 비판 검토하여 지방호족의 성격보다는 야마토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연구도 제기되고 있다(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東京: 岩波書店, 1983); 平野邦雄,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85).

37) 『일본서기』권17 「계체기」원년 정월조 및 5년 10월조, 12년 3월조, 20년 9월조.

- B-1. 계체천황대에 筑紫君 石井이 천황의 명을 따르지 않고 무례함이 많았다, 이에 物部荒甲之大連과 大伴之金村連 두 사람에게 명하여 石井을 죽이게 하였다.³⁸⁾
2. 계체 21년(527) 6월, 近江毛野臣은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이때 축자의 국조 磐井이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지 몇 년이 지났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에게 보내어 毛野臣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였다.…이에 毛野臣은 방해를 받아 중도에서 머무르게 되었다.³⁹⁾
3. 磐余玉穗朝(계체천황) 때에 石井의 종자인 신라해변인을 토벌한 天津水凝의 후에 上毛布直의 造⁴⁰⁾

사료 B는 磐井의 난을 보여주는 사료군으로, B-2와 3의 신라가 磐井의 난에 개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磐井은 수년 전부터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毛野臣이 6만의 군대로 도해하여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와 탁기탄을 부흥시키려 하자 신라는 이를 막기 위해 磐井에게 뇌물을 주어 난을 일으키게 했고, (B-2) 風前國 上膳縣의 토착호족이었던 上毛는 石井(= 磐井)의 종자인 신라해변인을 친 공로로 伊吉 섬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⁴¹⁾(B-3) 신라가 주었다는 뇌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최근 ‘石井의 종자’에 대해 앞서 본 가라와 신라의 통혼 시 왕녀가 거느린 100명의 종자를 ‘침략부대’ ‘외교공작원’으로 본 견해를 참고하여 석정의 종자 역시 신라가 파견한 ‘군사적 지원부대’로 파악한 견해

38) 『고사기』 繼體天皇段 ‘此之御世 筑紫君石井 不從天皇之命而 多無禮 故物部荒甲之大連 大伴之金村連二人而 殺石井也’.

39)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1년 6월조.

40) 『國朝本紀』 권10 伊吉嶋造條 ‘磐余玉穗朝 伐石井從者新羅海邊人 天津水凝後上毛布直’

이 사료는 鎌田純一, 『先代舊事本紀の研究 : 技本の部』 (東京: 吉川弘文館, 1960)에 수록된 『國朝本紀』 권10 伊吉嶋造條의 교감을 참고하였다. 『國史大辭典』 5 (東京: 吉川弘文館, 1998)에 의하면 『先代舊事本紀』는 9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天神本紀」(권3), 「天孫本紀」(권5), 「國朝本紀」(권10)는 오랜 사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어 사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41) 山尾幸久, 『筑紫君磐井の戰爭』 (東京: 新日本出版社, 1999), 47쪽.

가 있다.⁴²⁾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신라의 뇌물이란 바로 ‘신라해변인’으로 표현된 군사적 지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³⁾ 그렇다면 風前國의 토착호족이었던 上毛는 단순히 신라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파견한 지원부대를 진압하였고 그 공으로 伊吉의 國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난은 1년여 만에 진압되었는데, 그의 아들인 筑紫君葛子は 부친에 연좌되어 죽는 것이 두려워 精屋 둔창을 바치고 속죄할 정도였고,⁴⁴⁾ 앞서 언급한 대로 토착호족은 신라군 진압의 공으로 國造가 될 정도로 난은 대규모적이었고, 신라 측의 개입 또한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계체신왕조가 야마토 지역에 입성하지 못하고 주변을 전전하면서도 집중한 것은 한반도 제국과의 외교관계였다. 「계체기」가 거의 한반도 관련 기사로 이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계체신왕조가 처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야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는 선진문물 공여에 따른 야마토 정권의 군사력 제공이라는 용병관계로 규정될 정도로,⁴⁵⁾ 주로 백제와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야마토 정권은 가야제국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야제국이 일찍부터 자국의 철 자원의 공급지였기 때문일 것이다.⁴⁶⁾

한편 신라의 동향에 대해서는 야마토 정권은 백제나 가야제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외에는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⁴⁷⁾ 진압은 되었지만, ‘영

42)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58~59쪽.

43) 이재석은 신라의 뇌물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편자의 작문으로 보고 있으나, ‘신라해변인’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盤井과 신라 간 유대관계의 매개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6세기 초 筑紫國 이와이[磐井]의 난과 신라」 『新羅史學報』 25(2012), 63쪽).

44) 『일본서기』권17 「계체기」22년 12월조.

45) 金顯求,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85).

46) 『삼국지』 「위서」30 동이전 한전.

47) 「신라본기」에는 소지마립간 22년(500) 3월 왜와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문무왕 10년인 670년까지 관계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은숙은 이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 시의 월전의 잔존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은숙, 「6세기 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 『신라문

토통일전쟁'의 성격을 지닌 일본 고대 최대의 내전⁴⁸⁾이라고도 평가되는 반정의 거병에 신라가 개입하였다는 것은 계체신왕조의 대외정책이 일정 부분에서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반정 등 九州 세력이 야마토 정권과는 별개로 한반도 제국과 독자적인 외교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야마토 정권이 일본 열도 내에서 아직은 통일권력으로서 군림하지 못하는 지도력의 미성숙이 드러난 것이었고, 이를 통해 瀬戸内海 연안 및 九州의 제호족 간의 한반도 제국과의 독자적 외교를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⁴⁹⁾ 바로 이즈음에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가 야마토 정권에게 한반도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여를 요청해왔고, 야마토 정권은 이를 수락하여 毛野臣을 파견하였다. 그렇다면 毛野臣의 도해는 아리사등과 안라에게는 자국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고, 야마토 정권으로서는 선진문물의 공여처인 한반도 남부를 둘러싼 정세, 그 중에서도 九州와 결탁하였던 신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파생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1. 毛野臣의 역할

毛野臣은 久斯牟羅에서 2년간 체류하였다. 그의 역할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가 도해한 시기부터 살펴본다.

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1994), 179~180쪽). 「계체기」에도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는 거의 없으며, 이후 6세기 중~후반대에 들어가서야 야마토 정권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및 신라와도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흙명기」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8) 吉田晶,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卷2, (東京: 岩波書店, 1975), 49~51쪽.

49) 大山誠一은 5세기 중국 남조와 야마토 정권 간 조공외교가 단절된 후 서일본 제호족과 한반도 제국 간 민간외교가 부상하자 야마토 정권이 이를 개입하는 과정이 임나일본부를 포함하는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80~81쪽).

- C-1. 계체 21년(527) 6월, 近江毛野臣은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이때 축자의 국조 磐井이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지 몇년이 지났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에게 보내어 毛野臣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였다.…이에 毛野臣은 방해를 받아 중도에서 머무르게 되었다.⁵⁰⁾
2. 계체 23년 봄 3월에 … 이 달에 近江毛野臣을 안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신라에 칙으로 南加羅와 喙己呑을 재건하도록 권하였다… (중략)⁵¹⁾

위 사료에 의하면 毛野臣은 계체 21년인 527년에 도해하려다가 반정의 난으로 중단되었고,(C-1) 진압 후인 529년에 도해하였다고 한다(C-2). 반정의 난 이유가 ‘남가라와 탁기탄의 재건을 위한 毛野臣의 도해’를 막고자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가 전하는 금관국의 멸망은 532년이기 때문에 그가 도해하려 했다는 527년과는 5년의 차가 발생한다. 반정의 난과 毛野臣의 도해에 인과관계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참고한다면,⁵²⁾ 527년에 도해하려했다는 것은 『일본서기』 편자의 윤색일 가능성이 높다. C-2의 529년설 역시 안라가 주최한 회의의 의제인 이른바 ‘남가라 등의 재건’을 통해 그 시점을 추정한다면 금관국이 병합된 532년 이후에야 할 것이다.⁵³⁾ 이러한 3년의 기년문제가 발생한 것은 계체의 사망과 관

50) 『일본서기』권17 「계체기」21년 6월조.

51)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3월 시월조.

52) 三品彰英, 「『繼體紀』の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の所傳を中心として」, 25~27쪽.

53) 毛野臣의 도해를 인정하는 연구자 간에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532년 이후로 도해를 파악하는 견해는 三品彰英(같은 논문, 1966, 42쪽), 大山誠一(『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2~55쪽), 이재석(『日本書紀』를 통해 본 안라국과 주변제국, 188~191쪽), 연민수(『고대한일관계사』, 197쪽), 이영식, 「6世紀 安羅國史 研究」, 『國史館論叢』, 61(1995), 103~104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529년에 도해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위가야와 이연심이다. 먼저 위가야는 모야신의 도해를 529년 4월로 상정하였다. 23년 이달(是月) 기사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국제회의의 시점을 재정리하여 23년(529) 4월의 웅천회의가 안라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파악하였다. 안라회의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면, 바로 4월에 열렸다는 웅천회의에는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웅천회의를 안라회의 앞에 배치하여 아리사등이 주최한 웅천회의에 모야신이 중재자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

런된 저본(531년설과 532년설)이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이었고⁵⁴⁾ 이 중 「계체기」 25년(531) 기사에 인용된 「百濟本記」의 기록에 신빙성을 두었기 때문에 남가라 멸망을 전하는 기사가 3년씩 앞당겨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⁵⁵⁾ 따라서 毛野臣 관련 한반도 기사 역시 3년 내려야 하며⁵⁶⁾ 그렇다면 그의 도해는 53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毛野臣의 역할이다.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毛野臣의 도해는 아리사등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도해에는 아리사등과 안라가 기대하는 역할과 야마토 정권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각각 있었을 것이다.

D-1. 계체 23년 봄 3월에 … 이 달에 近江毛野臣을 안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신라에 칙으로 南加羅와 喙已呑을 재건하도록 권하였다. 백제는 將軍 君尹貴·麻那甲背·麻鹵 등을 보내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듣게 하였다. 신라는 蕃國의 관가를 깨트린 것을 두려워하여 大人을 보내지 않고, 夫智奈麻禮·奚奈麻禮 등을 안라에 보내어 조칙을 듣게 하였다. …백제의 사자 將軍 君 등은 당 아래에 있었다. 여러 달 동안 당 위에서 계책을 도모하였다. 將軍 君 등은 그 뜰에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겼다.⁵⁷⁾

2. 계체 23년 여름 4월에 … 임나왕 己能末多干岐가 내조하였다〔己能末多라 함은 阿利斯等일 것이다〕. “… 지금 신라가 원래 주어진 영토를 무시하고 빈번하게 국경을 넘어 침략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天皇에게 아뢰어 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알렸다.⁵⁸⁾

의’」, 297~301쪽) 이연심은 남가라가 524~53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멸망했다고 보고 『일본서기』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527년 6월에 1차로 도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반정에 의해 차단되었고, 이후 1년 6개월만인 529년에 안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연심, 「近江毛野臣의 任那派遣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30(2006), 16~21쪽).

54)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51쪽.

55)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의 所傳を中心として-」, 15~24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11쪽; 정효운, 「‘繼體紀’ 사료에 관한 기초적 고찰」, 『일어일문학』, 33(2007), 334쪽.

56)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36쪽.

57)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3월 시월조.

58)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하4월조.

3. 계체 23년〔여름 4월〕이달(是月)에 사신을 파견하여 己能末多干岐를 보냈다. 아울러 임나에 있는 近江毛野臣에게 “보고된 바를 조사하여 서로 의심되는 바를 화해시켜라.”고 명하였다. 이에 毛野臣이 熊川에 머물면서〔어떤 책에서는 임나의 久斯牟羅에 머물렀다고 한다〕신라·백제 2국의 왕을 소집하였다. 신라왕 佐利遲는 久遲布禮〔어떤 책은 久禮爾師知于奈師磨利라고 한다〕를 보내고 백제는 은솔 彌騰利를 보내 모야시이 있는 곳에 가게 하였고, 왕이 직접 오지 않았다. 毛野臣은 대노하였다.…이로 인해 신라는 다시 上臣 伊叱夫禮智干岐를 파견하여〔신라는 大臣을 上臣이라 한다.…毛野臣은 멀리서 무장을 갖춘 병사 수천 명을 보고, 웅천에서 임나의 己叱己利城으로 들어갔다.…상신이 “4촌을 약탈하고〔金官·背伐·安多·委陀의 4촌이다. 어떤 책에서는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의 4촌을 일컫는다〕사람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 4촌이 약탈당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⁵⁹⁾
4. 계체 24년(530) 가을 9월에 임나가 사자를 보내 “毛野臣이 久斯牟羅에 집을 짓고 머무른 지 2년인데〔어떤 책에는 3년이라 하였는데, 가고 오고 간 횟수를 합한 것이다〕정사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항상 인민을 괴롭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이때 阿利斯等은 그가 사소한 것에만 집착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자 자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모든 행적을 알고 등을 돌릴 생각을 가졌다.…⁶⁰⁾
5. 계체 24년(530) 가을 10월에 調吉士가 임나에서 돌아와 “毛野臣은 사람됨이 교만하고 사나우며 정사에 익숙하지도 못합니다. 끝내 화해를 시키지도 못하고 가라를 擾亂케 하였습니다.…⁶¹⁾

사료 D는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에 관한 것으로, 그는 주로 웅천 즉 구사모라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1과 4) 이로 보아 그의 도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임나의 아리사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아리사등이 신라의 종자를 돌려보내고 가라왕과 대척점에 설 정도 가야제국 내에서 유력한 주장층임을 살펴보았다. D-2에서 임나왕 기능말다간기는 아리사등이라고 분주를 달고 있는데, 이 분주를 참고한다면

59)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하4월조) 이달(是月)조.

60)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9월조.

61)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10월조.

통혼이 결렬되고 그 결과 신라의 군사적 행동까지 초래한 인물은 아리사등 즉 기능말다간기였던 것이다.

임나왕 기능말다간기 즉 아리사등은 가야제국 내 어느 곳의 수장이었을까. 541년 백제의 1차 ‘任那復建會議’ 개최 시 남가라, 탁기탄, 탁순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데,⁶²⁾ 이로 보아 532년 남가라가 신라에 병합된 후 탁기탄과 탁순도 신라에 의해 순차적으로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라회의의 의제가 이른바 ‘남가라 및 탁기탄의 재건’ 이라는 명분이었다면 국제회의가 열리는 시점인 532년에는 탁기탄도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의 가야 3국의 병합 중 532년 안라회의 개최 당시까지 병합되지 않은 국가는 탁순이다. 즉 임나왕 기능말다간기는 탁순국의 수장일 가능성이 높다.⁶³⁾ 탁순은 현재 창원 일대로 비정되는데⁶⁴⁾ 毛野臣의 주된 체류지였던 구사모라 역시 지금의 창원으로 비정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탁순의 수장이었던 아리사등은 통혼을 파탄낸 이후 신라의 군사적 압박이 자국을 향해 오자 毛野臣의 도해를 추진한 것이다.

위 사료를 보면 안라회의가 먼저 개최되었고 그 회의는 수개월간 지속되었다고(D-1) 하여 4월에 열렸다고 하는 웅천회의는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 기사로 파악하거나,⁶⁵⁾ 毛野臣의 활동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회의를 각색, 가필한 것으로 보아 웅천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⁶⁶⁾ 한편 기사의 시기를 해체하여 웅천회의는 아리사등이 신라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529년 4월에 개최되었고, 안라회의는 탁순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재침을 막기 위해 530년 10월 이후에 개최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⁶⁷⁾

62) 『일본서기』권19 「흠명기」2년 4월조.

63) 백승중,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2000), 73쪽; 이영식, 「六世紀 安羅國史 研究」, 『國史館論叢』, 62(1995), 108~110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08쪽.

64) 김태식, 같은 책, 173~186쪽.

65)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37~38쪽.

66)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6~197쪽.

67)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296~309쪽. 이 견해는 두 회의가 각각 열렸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탁순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웅천회의와 안라회의에 대해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열린 장소, 회의 참가자, 목적,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기간 및 시기로, 3월에 열린 안라회의가 수개월 간 진행되었다면 4월의 웅천회의는 열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수개월 간 진행되었는데 백제는 뜰에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겼다’ (D-1)의 의미가 실제 기간이 아니라 안라의 ‘안전보장’을 백제가 좀처럼 동의 내지 보장해주지 않자, 안라로부터 백제가 상당한 견제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수개월 간 진행되었다는 문구에 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532년 3월에 안라회의가 개최된 후 이어 4월에 웅천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고자 한다.

먼저 D-1은 안라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가라의 백제 및 신라의 남부지역에 대한 영역화 저지 전략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자 안라는 독자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료에는 毛野臣의 역할이 천황의 칙으로 ‘남가라 및 탁기탄의 재건’을 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가야제국을 야마토 정권이 지배했다는 8세기의 한반도 번국사관이 투영된 것으로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으로 봐야 한다. 안라가 회의를 개최한 궁극적인 목적은 안라국 주변까지 진출하여 걸탁성을 축성한 백제와 탁기탄 및 금관국을 복속하고 낙동강 이서로의 진출을 공식화 한 신라를 외교력을 동원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한 후 두 강대국의 군사적 압박을 공개하여 자국의 안위를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것에 있었을 것이다.⁶⁸⁾

그리고 안라가 야마토 정권을 대표하는 毛野臣에게 요구하였던 역할은 야마토 백제가 기문지역에 대한 공개적 추인을 얻었던 513년의 회의처럼, 안라의 자국안전 보장에 대한 공개적 지지 및 지원을 요구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6세기 전반에 선진문물 공여와 군수물자 제공을 통해 형성된 백

68) 한편 백승옥은 안라의 국제회의 목적을 백제의 가야지역 잠식 의도를 견제할 새로운 배후 후원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신라를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백승옥,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28쪽) 위가야는 ‘국제회의’의 개최목적은 탁순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대상은 안라이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의 재침으로부터 탁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본다(위가야, 같은 논문, 310~313쪽).

제와 야마토 정권 간 친연관계를 고려한 안라 측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다만 毛野臣의 역할을 두고 백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추해 본다면 일단 백제는 신라가 외교 등을 담당하는 나마를 파견한 것과 달리 장군직을 파견함으로써 안라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신라의 군사행동에 대한 견제 및 동향 파악이 그 목적이었을 것이다.⁶⁹⁾ 또한 야마토 정권이 기존의 친백제 정책과 별개로 안라국의 자존책을 지지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후술하는 毛野臣의 축출과정에서 백제가 毛野臣을 내놓으라고 아리사등을 압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야마토 정권의 대외전략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毛野臣은 D-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리사등이 주최한 웅천회의에도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는 신라왕 佐利遲가 久遲布禮를 백제는 은솔 彌騰利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D-3) 신라의 경우 사자의 이름이 분주로 확인되는데 비해 백제는 파견주체가 나라로 되어 있는 등 신빙하기 어렵다.⁷⁰⁾ 따라서 이 회의에 백제는 참가하지 않았고 신라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였던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매개로 하여 신라와 웅천에서 회합을 주최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리사등이 회합을 연 목적은 ‘和解相疑’⁷¹⁾ 즉, 신라와 임나 간에 서로 의심되는 바에 대한 화해였을 것이다. 여기서 ‘상의’란 탁순에 대한 신라의 군사적 진출에 대한 의심일 것이며 ‘화해’란 그로 인해 빚어진 탁순과 신라 간의 의심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毛野臣의 역할은 탁순과 신라가 서로 의심나는 부분을 화해시키는 것 즉 외교적으로 중재하는 것이었다.⁷²⁾ 이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D-4), ‘마침내 화해를 시키지도 못했다’ (D-5)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毛野臣은 ‘약속한 것’ 즉 화해를 추진하는 중재를 못했다는 비난(D-4)과 함께 귀국을 종용받았던 것이다.

69)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60쪽.

70)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301쪽.

71) 池内宏은 ‘和解相疑’를 일본에 대한 의혹을 풀고 전처럼 가야를 일본에 속하게 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151쪽).

72)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53-54쪽.

그렇다면 탁순의 아리사등은 왜 야마토 정권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하였을까. 당시의 정황에서 추론한다면 가라국은 이미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고, 안라 역시 자국의 안위를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탁순의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을 접하지 않는 야마토 정권이 중재자로서 가장 적합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야마토 정권을 참여시킴으로써 신라에게 야마토 정권이 탁순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탁순의 전략은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성왕의 언급대로 탁순은 상하가 분열되어 있고 왕 스스로 귀부하고자 신라에 내응했다고 하여,⁷³⁾ 毛野臣의 중재가 실패하자 탁순왕 스스로 항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탁순의 毛野臣 중재를 통한 자국의 안위보전 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한편 D-4에는 신라의 상신 伊叱夫禮智干岐가 행한 다다라 등 4촌 함락이 웅천회의의 결렬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이 4촌은 남가라 즉 김해의 금관국이 멸망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⁴⁾ 그렇다면 毛野臣의 웅천회의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된다. 웅천회의의 결과에 이어 신라의 4촌 함락을 서술한 것은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毛野臣의 실정 때문에 신라에게 병합되었다는 『일본서기』 찬자의 ‘임나지배’ 사관에 기초하여 윤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야마토 정권의 毛野臣 파견목적과 추방

야마토 정권의 사신인 毛野臣은 탁순의 ‘화해상의’에 대한 외교적 중재, 그리고 안라의 안위보전에 대한 공식적·공개적 지지라는 역할 수행

73) 『일본서기』권19 「흙명기」2년 4월조.

74) 김태식, 『加耶聯盟史』, 201~211쪽. 반면 위가야는 529년 신라가 금관국을 약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격으로 보고, 이때 심대한 타격을 받은 금관국이 532년에 항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302쪽).

과 함께 야마토 정권의 실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러나 목적과 역할과의 사이에서 괴리가 생길 때 그 관계는 와해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1년 후인 533년에 추방으로 이어졌다. 먼저 毛野臣이 파견된 목적이다.

- E-1. ①계체 24년(530) 가을 9월, 임나가 奏上하길 “毛野臣이 久斯牟羅에 집을 짓고 머무른 지 2년[一本에는 3년이라 하는데, 왕복하는데 걸린 해수를 합친 것이다.]이 되었으나 정사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② 일본인과 임나인 사이에 자주 아이가 생겨나는 것은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처음부터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毛野臣은 즐겨 誓湯을 두어 ‘진실한 자는 데지 않고, 거짓을 말한 자는 반드시 데일 것이다’ 라며 끓은 물 속에 던져 넣으니 죽는 자가 많습니다. ③ 또 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를 죽이고[大日本人이 蕃國女를 얻어 낳은 것을 韓子라 한다.], 항상 백성을 괴롭히고, 끝내 화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 ④ 이에 천황은 그 행상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불러 들었다. 그런데도 오지 않았다. … 사람을 보낸 후에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調吉士는 조정의 사신이다. 만일 나보다 먼저 돌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나의 죄는 반드시 무거울 것이다” 라고 했다. 곧 調吉士를 보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伊斯柵牟羅城을 지키게 하였다. ⑤ 이에 아리사등은 그가 사소한 일에만 집착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자주 귀국할 것을 권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⑥ 이에 행적을 알고 등을 돌릴 마음을 품었다. 이에 久禮斯己母를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고, 奴須久利를 백제에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毛野臣은 백제의 군사가 온다는 것을 듣고, 背評에서 마중하여 싸웠다. [배평은 지명이다. 다른 이름은 能備己富利라고 한다.] 사상자가 반이었다. 백제는 노수구리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목에 큰칼을 씌우고 신라와 함께 성을 포위하였다. 아리사등을 꾸짖어 “毛野臣을 내놓아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毛野臣이 성을 굳게 지켜 대세가 그를 생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양국이 적당한 땅을 찾아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성을 쌓고 돌아갔다. 久禮牟羅城이다. 돌아가는 길에 騰利牟羅·布那牟羅·牟雌牟羅·阿夫羅·久知波多柵 등 5성을 빼앗았다.⁷⁵⁾

2. 계체 24년(530) 가을 10월에 調吉士가 임나에서 돌아와 “毛野臣은 사

75)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9월조.

람됨이 교만하고 사나우며 정사에 익숙하지도 못합니다. 마침내 화해를 시키지도 못하고 가라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멋대로하며 환란을 막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이해, 毛野臣은 소환되어 대마도에 이르러 병들어 죽었다. 장사지낼 때는 강을 따라 近江에 왔다.…76)

E 사료는 毛野臣과 아리사등의 갈등, 아리사등의 백제와 신라에 毛野臣 축출요청, 그로 인한 백제와 신라의 군사활동, 그 결과 귀국하다가 대마도에서 사망한 것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아리사등과 毛野臣 간의 갈등과 그의 축출을 위해 백제와 신라를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갈등이란 E-1 ⑤의 ‘사소한 일에만 집착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 는 아리사등의 비난으로 보아, 화해중재가 결국은 실패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사등이 ‘사소한 일’ 이라고 치부한 그 사소한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이는 毛野臣의 실질적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적은 첫째 반정과 결탁한 신라의 동향 및 의도 파악이었을 것이다. 계체는 즉위한 지 20년 만에 야마토 지역인 磐余玉穗에 입성할 정도로 신왕조의 성립이 순탄하지 않았는데, 입성한 다음 해에는 신라와 결탁한 반정이 난을 일으켰다.(C-1) 이는 계체왕조뿐만 아니라 畿内세력에게도 큰 위기감이었을 것이고 계체왕조가 추진한 친백제 일변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계체왕조는 한반도에서 직접 신라의 의도와 동향 및 한반도 남부의 정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고 바로 이 무렵에 탁순과 안라에서 회합의 중재 및 참가를 요청해 오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는 야마토 조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던 기내 호족세력의 사적인 외교교섭에 대한 통제 및 정리에 있었을 것이다.⁷⁷⁾ 이는 사료 E-1②와 ③에

76)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10월조.

77) 이근우는 일본 열도 각지의 호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왜인 혹은 왜인과 혈연적 관계가 있는 인물(韓子)을 통제,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근우,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1994), 198쪽).

서 일본인과 임나인이 자식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때 誓湯을 이용하였다거나 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 서당은 盟神探湯으로 신에게 맹세한 후 손을 열탕에 넣어 테인 자를 죄인으로 파악하는 고대 神判의 일종이다.⁷⁸⁾ 실제 毛野臣이 이 방법으로 韓子를 구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승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자의 존재가 많았으며 이른바 ‘서당’이라는 방법을 통해 통제 및 제거해야 할 정도로 열도 내 각 지역의 호족들이 별도의 루트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제세력과 교역, 혼인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⁷⁹⁾ 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 역시 吉備지역의 호족과 한반도 인과의 혼인으로 태어난 인물이라는 정보 밖에는 없으나, 毛野臣이 살해할 정도라면 이들도 吉備의 세력과 별도의 교역체계를 갖추고 선진문물 등의 교역을 담당할 세력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아리사등이 毛野臣이 ‘사소한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신라와의 화해를 위한 중재보다는 아마토 정권으로의 외교권 귀속을 위한 한자의 통제 및 제거, 그리고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제국의 동향파악에 집중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毛野臣의 행적에 대해 아리사등이 크게 반발하자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한 야마토 조정은 그의 소환을 결정하였다. 그러자 毛野臣은 ‘헛되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나의 죄과는 반드시 무거울 것’ (E-1④)임을 알고 소환을 거부하고 伊斯枳牟羅城에서 농성을 벌였다. ‘나의 죄과’란 결국은 아리사등이 사소한 것이라 치부해버린 毛野臣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것으로 그 스스로가 본인의 죄과 즉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毛野臣의 자진 귀국을 바랐던 아리사등은 그가 농성에 돌입하자 결국은 군사를 동원하여 그를 추방하고자 하였다. E-1⑥은 그 과정이다. 다만 그

78) 小島憲之外校注·譯, 『日本書紀』①, (東京: 小學館, 1996), 476쪽 頭註 9.

79) 大山誠一은 야마토 조정의 뜻을 받아 가야제국의 정치를 리드하고 가야제국을 규합하는 합의체의 형성을 위해 일본에 충실하고 가야의 사정에도 밝은 인물이 필요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당이라는 하나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8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첫째 아리사등이 신라와 백제 양국에게 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점, 둘째 백제가 군대를 파견하면서도 청병사였던 노수구리를 포로로 삼고 아리사등을 압박하는 점, 셋째 23년 3월 신라가 함락시킨 3성 중의 하나인 포나모라성이 이때에도 함락된 5성의 하나로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먼저 아리사등은 가라와 신라의 통혼을 파기할 정도로 신라에 적대적이었고 이후 신라의 군사활동이 가시화되자 화해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그가 신라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양국이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점 역시 사실로서 보기 어렵다.⁸⁰⁾ 그 이유는 6세기 들어 백제와 고구려 간 계속된 전쟁에도 불구하고 548년까지 신라의 백제 구원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특히 529년의 전투는 고구려 안장왕이 직접 병력을 거느리고 穴城의 공략 후 오곡을 공격해왔고 결국 백제는 크게 패배하였다. 백제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신라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은 5세가 말 이전의 동맹관계를 회복하지 못함을 의미할 것이다.⁸¹⁾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함락했다는 5성과 구례모라성의 공동 축성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왕의 회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신라가 봄에 탁순을 빼앗고 우리 구례산의 수자리를 쫓아내고 드디어 점령했다’⁸²⁾고 하여, 신라의 탁순 병합 시 백제가 축성하였던 구례산 즉 구례모라성을 신라가 점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구례모라성을 축성한 것은 백제이며, 5성의 공략도 백제로 봐야 할 것이다.⁸³⁾

80)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2-53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14-215쪽; 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195-196쪽;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2014), 73쪽.

81) 서보경, 같은 논문, 193-194쪽.

82) 『일본서기』권19 「흙명기」5년 3월조.

83)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3-54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14-216쪽. 김태식은 군사행동 주체는 백제였으나,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제외시키고 탁순, 백제, 신라의 3자협정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신라에게 약간의 군사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서보경 역시 이 군사행동의 주체를 백제로 보고 있으나, 毛野臣의 존재에 대해서는 백제가 파견한 백제장의 안락에서의 활동을 毛野臣으로 개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毛野臣이 백제의 군사를 맞아 싸웠다는 배벌(伐·評은 邑

그리고 백제가 노수구리를 사로잡고 아리사등에게 毛野臣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아리사등과 毛野臣과 한 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자,⁸⁴⁾ 毛野臣의 활동으로 대변되는 야마토 정권의 대외전략에 대해 백제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⁸⁵⁾ 즉 백제 입장에서 야마토 정권의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친백제적 관계에 기반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탁순과 안라가 자국 보전책으로서 야마토 정권을 끌어들이려 하자 야마토 정권도 이에 응하여 毛野臣을 탁순과 안라의 회합에 참여하게 하고 더 나아가 탁순의 영내에 머물러 있게 하자, 백제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야마토 정권이 더이상 개입하지 말 것과 동시에 외교노선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 3월에 신라가 공략한 布那牟羅 등 3성과 24년 9월 백제가 공략한 5성 중에 布那牟羅城이 중복된 문제이다.⁸⁶⁾ 신라가 이

리라(의 의미)은 계체 23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공취한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는 배벌을 장악하고 있던 신라를 상대로 한 전투로 이해하고 있다(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195~196쪽). 한편 위가야는 ‘신라에게 속았다’는 성왕의 회고를 통해 毛野臣을 배평에서 깨뜨리고 백제가 추격하자 신라는 이를 가야지역 진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백제군을 회유하여 공동 군사작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306~307쪽).

84) 위가야, 같은 논문, 307쪽.

85) 장인성은 아리사등과 毛野臣의 관계에 대해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외교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 파악하였다. 毛野臣이 장기 체류하면서 아리사등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의 세력확대에 집중하자 毛野臣을 배제하려고 하였으나 毛野臣이 백제에 강경대응하자 그를 축출하지 못하고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장인성, 「가야 阿利斯等の 외교와 행적」, 『백제학보』, 15(2015), 16쪽).

86) 기존의 연구에서는 계체 23년 3월의 北境 5성이 24년 9월조의 5성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일 사건 내지 축약기사로 파악하기도 한다(末松保和, 『任那興亡史』, 140쪽;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下卷 (東京: 天山舎, 2002), 257~258쪽; 武田幸男, 「新羅法興王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舎, 1974), 103쪽;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5쪽).

미 함락시킨 포나모라성이 백제가 공략한 성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탁순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백제가 구례모라성을 축성한 후 신라가 장악하였던 포나모라성을 비롯한 주변의 요지까지도 장악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지역은 창원 일대로 추정된다.⁸⁷⁾ 毛野臣의 축출을 목적으로 백제를 끌어들이던 아리사등은 오히려 백제의 축성과 5성 함락이라는 군사적 진출을 허용하고 말았으며, 탁순은 백제의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스스로 신라에 내응하여 결국 신라에 편입되었다.⁸⁸⁾ 그리고 毛野臣은 백제가 구례모라성을 축성한 후 철수한 후 귀국길에 對馬島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서기』 내에서 그의 행적이 부정적으로 기록된 이유를 간단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일본 고대의 선조전승이 선조의 무공을 찬미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업적도 군사적인 면을 과대하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⁸⁹⁾ ‘다다라 등 4촌이 초략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 (D-3) ‘정사를 게을리한다’ (E-1①) ‘항상 인민을 괴롭히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다’ (E-1③) 등등 그의 행적이 대부분 악정으로 기록된 점은 의외일 정도다. 한반도에서의 활동이 실패인 탓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毛野臣 기록만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는 『일본서기』 편자가 毛野臣의 전승을 기반으로 그의 행적을 실정·악정 등으로 개편하여 기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계기는 672년 임신의 난이었다고 생각된다.⁹⁰⁾ 近江毛野臣 이후로도 이 씨족은 이 씨족은 계체조~추고조까지 야마토 정권에서 외교와 군사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였는데, 추고 31년조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다.⁹¹⁾ 고대 일본 최대의 내전이라는 ‘壬申의 亂’ 을 거쳐 천무천

87) 김태식, 『加耶聯盟史』, 213~216쪽.

88)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 4월조.

89)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東京: 東出版, 1973), 89쪽.

90) 壬申의 난은 天智天皇이 그의 아들인 大友皇子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자 天智의 동생 大海人皇子가 吉野로 피신하였다가 천지가 사망하자 吉野에서 나와 거병하여 大友皇子를 제거하고 大海人皇子가 天武天皇이 된 일본 고대의 내전을 말한다(『일본서기』 권28 「천지기」 10년 정월, 10월, 11월, 12월조 및 『일본서기』 권29 「천무기」 원년 5월~9월조, 「천무기」 2년 1월, 2월조 참조).

91) 近江毛野臣 이외에도 近江臣萬은 승준천황 2년에 東山道の 사신으로 파견

황이 즉위하여 씨족정책의 일환으로 ‘八色の姓’을 제정하였다.⁹²⁾ 그런데 이 八姓에 近江臣 씨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임신의 난 당시 近江朝廷을 지지하였으나 결국 이 난이 실패하자 近江臣 씨족도 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⁹³⁾ 즉 권력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에 近江臣 일족의 전승이 부정적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며, 이는 역으로 近江毛野臣이 실제로 탁순과 안라에 왜사로 파견되었던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으로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毛野臣은 탁순과 안라가 부여한 역할과 야마토 정권이 기대한 목적 등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신라와의 ‘화해상의’라는 중재 역할에 실패하였고, 또한 한자의 정리를 통한 야마토 정권으로의 외교권 귀속, 한반도 각국의 정보수집 등의 목적 역시 아리사등의 비관을 초래하여 백제의 병력까지 불러오게 되자 결국은 축출되어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로 볼 때 『일본서기』가 전하는 그의 활동은 ‘임나지배’를 전제로 하여 기술되었지만, 그 실상은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로 도해하였고 탁순과 안라의 국가적 실리를 위해 활약하는 등 양국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의 활동이 탁순이나 안라의 국가적 실리와 배치될 때에는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毛野臣의 역할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과 정치적 합의 하에 파견되어 안라와 탁순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활약한 최초의 왜신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안라와 백제가 왜계관료를 기용하여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비하려 한 점에서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되어 蝦蛄와의 국경시찰 업무를 담당하거나(『일본서기』권21 「승준기」2년 7월조) 近江脚身臣飯蓋는 신라를 정벌하는 부장군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일본서기』권22 「추고기」31년 7월조).

92) 『일본서기』권29 「천무기」13년 10월조.

93) 大橋信彌,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東京: 吉川弘文館, 2019), 27-29쪽.

IV. 맺음말

안라와 탁순 그리고 야마토 정권의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로서 파견된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가 파견된 배경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둘러싼 백제의 동진과 신라의 서진이라는 군사적 압박이 계기였다. 이에 안라와 탁순은 자국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야마토 정권에게 중재의 역할 등을 요청하였고, 야마토 정권은 이를 수락하여 毛野臣을 한반도에 파견하였다. 毛野臣의 역할은 탁순에서는 탁순과 신라 간의 화해를 위한 중재였고, 안라에서는 국제회의 개최시 공식적 공개적인 지지였다. 한편 毛野臣을 파견한 야마토의 실질적 목적은 반정의 난 당시 결탁한 신라의 동향과약과 열도 내 각 호족과 가야제국 간 별개의 루트를 통한 교역통제에 있었다. 毛野臣의 이러한 목적은 결국은 탁순의 아리사등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은 백제의 군사력까지 동원되는 과정을 거쳐 축출되었다. 약 2년간에 걸친 한반도 행적은 웅천(구사모라)회의 참가→안라의 국제회의 참가→웅천(구사모라)에서 거주하면서 한자 통제 및 정리→아리사등의 귀국 종용→거부, 백제군과의 배평 전투→추방되는 과정이었다. 탁순과 안라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하였던 毛野臣은 결국은 그 역할이 실패로 돌아가자 축출을 당하게 되지만, 이후 안라와 백제 내에서 왜계관료가 활약하는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강사, museo99@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

近江毛野臣(Ohuminokenanoomi), 야마토 정권(Yamato regime), 아리사등(Arishito), 탁순(Taksun), 안라(Alla)

투고일: 2023.10.17. 심사일: 2023.11.25. 게재확정일: 2023.11.27.

<국문초록>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박민경

近江毛野臣은 탁순과 안라의 자존을 위한 중재와 야마토 정권의 목적인 한반도 각국의 동향 파악 및 韓子の 통제 및 정리를 위해 파견된 야마토 정권의 사신이었다. 당시 탁순의 아리사등은 가라와 신라의 통혼을 파탄낸 후 신라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고, 안라 역시 자국 주변으로 진출하여 걸탁성을 축조한 백제로 인해 자국의 안위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에 당면해 있었다. 이에 탁순은 毛野臣을 중재자로 하여 신라와 웅천회의를 개최하였고, 안라는 신라, 백제 그리고 毛野臣을 참가시켜 안라회의를 개최하였다. 야마토 정권이 탁순 등의 요구에 응한 것은 九州의 盤井세력과 결탁한 신라의 동향 및 열도 내 각 호족이 별도의 루트를 만들어 한반도 제국과 교역을 행하는 것을 통제하여 외교권을 야마토 정권으로 일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毛野臣의 역할 중 탁순과 신라와의 ‘화해상의’ 라는 중재는 실패로 돌아갔고, 아리사등에게 사소한 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귀국을 종용받게 되었다. 毛野臣은 귀국을 거부하고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아리사등이 백제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그를 축출하려 하자 농성 끝에 귀국길에 올랐다가 병사하고 만다. 『일본서기』가 전하는 모야신의 행적은 ‘임나지배’를 전제로 하여 기술되었지만, 그 실상은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로 도해하였고 탁순과 안라의 국가적 실리를 위해 활약하는 등 양국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만 행동하였다. 毛野臣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파견된 목적 등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이후 안라와 백제의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안라와 백제는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왜계관료를 기용하여 야마토 정권과의 외교를 전개해 나가게 된 것이다.

<Abstract>

An Examination of Ohuminokenanoomi's Lif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h Century

Park, Min-Kyung

Ohuminokenanoomi近江毛野臣, who appeared in the *Nihonsyoki*日本書紀 *keitaiki*繼體紀, stay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bout two years, and was an envoy of the Yamato大和 regime to mediate the existence of Taksun卓淳 and Alla安羅,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control Hanza韓子. At that time, Taksun's Arishito阿利斯等 was facing military pressure from Silla新羅 after breaking up the marriage between Gara加羅 and Silla, and Alla was also facing the crisis of country due to Baekje百濟, which advanced near the country and built Geoltak-Seong乞毛城.

In response, Taksun held the Ungcheon Conference熊川會議 with Silla with Kenanoomi毛野臣 as the mediator, and Alla held Alla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Silla, Baekje, and Yamato's Kenanoomi.

The Yamato regime sent Kenanoomi to grasp the trend of Silla, that was in collusion with the forces of the Iwai盤井 in Kyushu九州. In addition, the other purpose of the Yamato regime was to control the heads of each state in Japan. Because they created separate routes and traded privately with the Gaya加耶 countries.

Among Kenanoomi's roles, mediating Taksun and Silla through "reconciliation" failed, and Ashito's criticism that he focused only on trivial matters prompted him to return his country. Kenanoomi refused to return and tried to make up for his failure, but eventually, when Ashito

tried to oust him by mobilizing the troops of Baekje, he was expelled and returned his country.

His activities recorded in the *Nihonsyoki* were described on the premise of “Imna任那 domination“, but in reality, he was active for the practical interests of these two countries under the political order of Taksun and Alla. After his ouster, Alla and Baekje appointed “waegye officials倭系官僚“ to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in the 6th century amid relations with the Yamato regime.

This means that diversification of diplomatic methods has been established, and this is the significance of Kenanoomi’s activities.

참 고 문 헌

1. 사료

『三國史記』, 『日本書紀』, 『古事記』, 『先代舊事本紀』.

2. 역주서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서울: 일지사, 2003).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 I·II·III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注 三國史記』 1~5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坂本太郎 外 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下 (東京: 岩波書店, 1965).

小島憲之 外 校注·譯, 『日本書紀』 ①·②·③ (東京: 小學館, 1996).

3. 단행본

金泰植, 『加耶聯盟史』 (서울: 一潮閣, 1993).

金顯求,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85).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 (서울: 一潮閣, 1993).

남재우, 『安羅國史』 (서울: 혜안, 200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서울: 혜안, 199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6).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東京: 吉川弘文館, 1992).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東京: 吉川弘文館, 1999).

大橋信彌,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 (東京: 吉川弘文館, 2019).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鈴木英夫,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東京: 青木書店, 1997).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東京: 東出版, 1973).

4. 논문

- 김은숙, 「6세기 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 『신라문화재 학술발표 논문집』, 15(1994).
- 나행주, 「6세기 한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2014).
-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검토」, 『지역과 역사』, 47(2020).
- 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07).
- 백승욱, 「안라고당회의의 성격과 안라국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2004).
- 백승욱, 「『日本書紀』에 보이는 阿羅斯等の 정체와 그의 외교활동」, 『한국민족문화』, 51(2014).
- 백승충, 「『任那復興會議』의 전개와 그 성격」, 『釜大史學』, 17(1993)
- 백승충,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 19(1995).
- 백승충, 「加羅 · 新羅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부대사학』, 20(1996).
- 백승충,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2000).
- 백승충, 「‘阿利斯等’ 사료의 기초적 검토」, 『지역과 역사』, 43(2018).
- 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위가야, 「백제의 己汶·帶沙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사림』, 58(2016).
-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역사와 현실』, 115(2020).
- 이근우,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1994).
- 이연심, 「近江毛野臣의 任那派遣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30(2006).
-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1995).
- 이영식, 「六世紀 安羅國史 研究」, 『국사관논총』, 62(1995).
- 이영식, 「대가야와 신라, 혼인동맹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세계』, 44(2013).

- 이재민, 「신라의 금관국 복속과정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 이재석, 「6세기 야마토정권의 對韓政策」,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이재석, 「6세기 초 繼體 新王朝의 성립과 그 의의」, 『한성사학』, 27(2012).
- 이재석, 「6세기초 筑紫國 이와이(磐井)의 난과 新羅」, 『신라사학보』, 25(2012).
- 이재석, 「『日本書紀』를 통해 본 안라국과 주변제국」, 『한국민족문화』, 31(2014).
- 이형기, 「안라회의의 전개와 왜의 대응」, 『지역과 역사』, 29(2011).
- 장인성, 「가야 阿利斯等の 외교와 행적」, 『백제학보』, 15(2015).
- 정효운, 「‘繼體紀’ 사료에 관한 기초적 고찰」, 『일어일문학』, 33(2007).
- 주보돈,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慶北史學』, 4(1982).
-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の所傳を中心として-」, 『日本書紀研究』2, (東京: 塙書房, 1966).
-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1978).
- 山尾幸久, 『筑紫君磐井の戰爭』 (東京: 新日本出版社, 1999).
- 平野邦雄, 「六世紀, ヤマト王權の性格」,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東京: 學生社, 1980).
- 平野邦雄, 「繼體・欽明紀の對外關係記事」,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1978).
- 武田幸男, 「新羅法興王의 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舍, 1974).
- 鎌田純一, 『先代舊事本紀の研究 : 校本の部』 (東京: 吉川弘文館, 1960).
- 吉田晶,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卷2 (東京: 岩波書店, 1975).